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신혜원*¹⁾²⁾

동국대학교-서울, 가정교육과*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tudents i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hin, Hye Won*

*Dongguk Univ-Seoul, Dept. of Home Economics Edu.**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college student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s for career counseling. A survey was conducted to students majoring Home Economics Education at four universities, and students major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Mathematics Education at one same university in Seoul from October to November, 2011. General satisfaction in major of Home Economics Edu. students was above average, but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was low. The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was lower for Home Economics edu. students than Korean Language edu. and Mathematics edu.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by university and class standing,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Students showed the lowest value in Home Economics teacher as considering job, and most of students considered teacher and major unconcerned job. Students considering major concerned job showed higher major satisfaction compared to students considering major unconcerned job. Career decision level was medium and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by major, university, class standing, gender, considering job. Career decision level was affected positively by only general satisfaction in major.

Key words: 학과만족도(major satisfaction), 일반적 관심 만족(general satisfaction), 사회적 인식 만족(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 가정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1) 교신저자: Shin, Hye Won, Dongguk Univ-Seoul, Seoul 100-715 South Korea
Tel: 02-2260-3415, E-mail: hws@dongguk.edu

2) 이 논문은 2012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서론

최근 들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www.kostat.go.kr)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9월 실업률은 2.9%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나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힘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대학 평가에 취업률이란 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취업률에 신경을 쓰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취업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함께 진로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중학교에서부터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때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와 관련 없이 성적이나 사회적 인식에 의해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즉,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학과를 선택했는지,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사범대학은 중등교원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특수목적 대학으로 타 대학에 비해 교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임용고사의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부터 임용고사 정원의 대폭 축소를 인하여 사범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각 학과에서도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정교과와 경우 공립 중등교사 임용고사 모집정원이 2009년 146명, 2010년 44명, 2011년 26명, 2012년도 9명, 2013년 40명으로 타 교과에 비해 정원의 축소가 심해 학생들의 교사로서의 진로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가정교사로서의 졸업 후 진로지도에

도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학생들의 진로의식의 형성과정에서 학과에 대한 만족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Lim, 1993)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 먼저 진로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과에 대한 만족은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다(Jang, 2003; Kang & Lee, 2006; Kim, 2008; Lee & Park, 2010; Lee et al., 2010). 진로결정수준은 전공계열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며(Koh, 1992)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 Lee, 2006; Kim, 2008; Lee & Park, 2010; Lee et al., 2010). 또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소재지, 학년, 성별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eon et al., 2001).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의류학, 사회복지학, 경호학, 무용학, 호텔·외식·관광학 등 다양한 학과에서 진로지도와 관련된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Jeon, Chang, & Lee, 2001; Kang & Lee, 2006; Kim, 2008; Kim, 2009; Lee & Park, 2010; Lee, Lee, Moon, & Lee, 2010). 그러나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가정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시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보고,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과, 학교, 학년, 성별, 고려직업 등의 효과를 살펴보고,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과만족도

학과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Ha, 1999)로 볼 수 있다.

Ha(1999)는 학과만족의 구성요인으로 교과, 관계, 일반, 인식 및 학교에 대한 만족의 5개 하위요인을 들었으며, 학과만족의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과 학교에 대한 만족 그리고 일반만족을 도출하였다. 지방 국립대와 서울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의 경우 사범대가 서울대에서는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지방대에서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의류학 전공 학생들의 경우 학과에 대한 만족은 남자가 여자보다, 지방이 서울보다,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Jeon et al., 2001)가 있는 반면 학과에 대한 만족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고,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은 남학생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Lee et al., 2010)도 있다.

측정방법은 다르지만 가정교육과 3학년을 대상으로 재학만족도를 조사한 Kim과 Chae(2008)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체로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본인의사로 입학했을 경우가 주변 권유나 성적에 의해 입학한 경우보다 재학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 학과, 학년, 성별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각 학과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각 학과에서 학생들의 학과만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Kim & Kim, 1997). 진로결정수

준에 대한 성, 학년, 전공에 따른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나 서로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Koh(1992)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4학년이 2학년보다 진로결정이 더 확고하며 사범계열 학생들의 진로결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Kim과 Kim(1997)은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4학년이 가장 높고 2학년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Oh와 Lee(2005)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아 지방대일수록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학년에 따라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고학년이 되어도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1학년부터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복지학 전공의 전북지역 학생들의 경우 성별, 학교에 따라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없고,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적 인식수준에 따른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Kang & Lee, 2006). 의류학 전공의 학생들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전공위주의 매우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비관련 직종을 고려하는 학생의 경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에 일반적 관심보다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0).

이처럼 진로결정수준도 학과만족도처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특히 가정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따라 학과만족도를 일반적인 관심 만족과 사회적 인식 만족으로 나누어 살펴봄과

동시에 진로결정수준도 살펴보았다. 또한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과, 학교, 학년, 성별, 고려직업 등의 효과를 살펴보고,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연구문제 1.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일반적 관심 만족, 사회적 인식 만족)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하며 타 학과(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교, 학년, 성별, 고려직업에 따라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2011년 10월에서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알기 위해 임의로 서울소재 2개 대학(A, B)과

지방소재 2개 대학(C대학 지방캠퍼스, D) 가정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학과에 따른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타 전공교육으로 국어와 수학을 선정하였다. 이는 중고등학교 수업시수 감소에 따른 임용고사 정원의 차이로 현재 사범대학내에서 가정교육과는 비인기학과로 국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는 인기학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과연 가정교육과 학생들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를 A대학으로 한정해 국어와 수학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A대학의 가정, 국어, 수학 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업시간 후 실시되었다. 회수된 437부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419부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학년마다 고루 응답을 얻고자 하였으나 4학년의 경우 이미 졸업학점을 채우고 임용이나 다른 취업준비로 인해 전공수업을 많이 듣지 않아 응답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가정교육과의 경우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Major	University	Class standing				Gender		Total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Male	Female		
Home Economic Edu.	A	frequency	18	22	23	9	9	63	72
		total %	6.1%	7.5%	7.8%	3.1%	3.1%	21.4%	24.5%
	B	frequency	31	24	12	4	8	63	71
		total %	10.5%	8.2%	4.1%	1.4%	2.7%	21.4%	24.1%
	C	frequency	34	38	23	25	20	100	120
		total %	11.6%	12.9%	7.8%	8.5%	6.8%	34.0%	40.8%
	D	frequency	12	11	6	2	2	29	31
		total %	4.1%	3.7%	2.0%	.7%	.7%	9.9%	10.5%
	total	frequency	95	95	64	40	39	255	294
		total %	32.3%	32.3%	21.8%	13.6%	13.3%	86.7%	100%
Korean Language Edu.	A	frequency	21	8	16	3	18	30	48
		total %	43.8%	16.7%	33.3%	6.3%	37.5%	62.5%	100%
Mathematics Edu.	A	frequency	34	18	13	12	48	29	77
		total %	44.2%	23.4%	16.9%	15.6%	62.3%	37.7%	100%

3. 측정도구

설문지는 학과만족도, 진로결정수준,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직업 및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학과만족도 문항은 나동진이 번안한 Illinois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한 Ha(1999)의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인 학과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일반적 관심 만족)과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사회적 인식 만족)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관심을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 학과의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우리 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과이다.’, ‘우리 학과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우리 학과에서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전공도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내가 속한 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의 7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값은 .883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 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 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속한 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학과가 도움이 된다.’의 5문항으로 신뢰도 값은 .847로 나타나 적절함을 나타냈다.

진로결정수준 문항은 Koh(1992)가 Osipow et al.의 척도를 번안한 문항 중 진로미결정검사에 해당하는 18문항을 선택하여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의 신뢰도 값은 .895로 나타났다. 원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학생들의 진로결정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직업을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자유 기술된 응답은 연구자가 전공 관련 직업과 비관련 직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전공 관련 직업은 다시 가정교사, 타과교사, 교사 관련 직업, 가정 관련 직업으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학교, 학과, 학년, 성별을 조사하였다.

4. 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9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t-test,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사후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일반적 관심 만족, 사회적 인식 만족)와 진로결정수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과만족도 중 일반적 관심 만족은 3.44로 나타났는데 모든 설문문항에서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일반적 관심에 따른 내용에 대한 만족은

Table 2.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Variable	No. of question	Cronbach's α
Major satisfaction	7	.883
General satisfaction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5	.847
Career decision level	18	.895
Considering job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university, major, class standing, gender)	4	

Table 3.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tudents majoring Home Economics Education

Variable		Mean	SD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44	.762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2.68	.732
Career decision level		3.17	.650

보통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방법은 다르지만 가정교육과 3학년을 대상으로 재학만족도를 조사한 Kim과 Chae(2008)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만족은 2.68로 사회적 인식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인식에 따른 학과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우리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2.18로 매우 낮게 나타나 사회에서 비인기학과로 취급받는데서 오는 학생들의 불만족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진로결정수준은 3.17 보통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문항 중 3점보다 낮게 나타난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특히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진로결정을 위해 여러 직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진로상담을 실시하는 등의 진로 지도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 함을 시사했다.

위와 같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사범대학내에서 타 학과와 차이가 있는지를 A대학에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가 <Table 4>와 같다. A대학에서 가정, 국어, 수학 교육과를 비교해보았는데 학과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과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 모두 국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가 가정교육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의 경우 국어나 수학교육과는 3.7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교육과는 2.60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매우 심한 차이를 보여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학과만족이 타과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에서 가정교육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함으로써 오는 차이로 결과적으로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떨어뜨려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사범대학내에서 타과로의 전과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가정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진로결정수준은 학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과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다.

2.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교, 학년, 성별, 고려직업에 따른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학교에 따른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

Table 4.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major in A university

Variable	Major	Mean	SD	F value
General satisfaction	Home Economic Edu.	3.5714 B	.64692	5.453***
	Korean Language Edu.	3.9494 A	.54218	
	Mathematics Edu.	3.8052 A	.68194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Home Economic Edu.	2.6028 B	.59528	91.949***
	Korean Language Edu.	3.7750 A	.50634	
	Mathematics Edu.	3.8416 A	.66755	
Career decision level	Home Economic Edu.	3.2338	.64862	1.404
	Korean Language Edu.	3.4340	.72812	
	Mathematics Edu.	3.3593	.64528	

***p<.001, A>B; Duncan test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다른 문자로 표시함

Table 5.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university

Variable	University	Mean	SD	F value
General satisfaction	A	3.5714 A	.64692	11.871***
	B	3.2495 B	.78347	
	C	3.6167 A	.71055	
	D	2.8433 C	.78883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A	2.6028 B	.59528	20.378***
	B	2.2535 C	.73598	
	C	3.0150 A	.65653	
	D	2.5484 B	.71548	
Career decision level	A	3.2338	.64862	1.029
	B	3.1815	.67095	
	C	3.1810	.63981	
	D	2.9910	.64695	

***p<.001, A>B; Duncan test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다른 문자로 표시함

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학교에 따라 학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은 A, C > B > D 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A와 C는 동일대학 서울과 지방캠퍼스로 B학교보다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세 학교 모두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D학교는 2.84로 학과에 대한 일반적 관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같은 가정교육과라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각 학교의 상황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특히 일반적 관심에 따른 학과만족은 학과의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으므로 학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은 C > A, D > B 학교 순으로 나타났는데 C학교만 3.01로 나타났고, 모두 2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B학교의 경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B학교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이므로 학교 내에서의 다른 학과에 비해 위상이 낮아 오히려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식만족의 경우 서울대에서는 사범대가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지방대에서는 오히려 높게 나타난 Ha(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학교에 따른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Kang과 Lee(2006)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나 Oh와 Lee(2005)의 대도시가

Table 6.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class standing

Variable	Class standing	Mean	SD	F value
General satisfaction	1	3.0782 C	.72117	21.438***
	2	3.3474 B	.67800	
	3	3.7723 A	.63568	
	4	3.9536 A	.74434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1	2.4505 B	.70859	9.759***
	2	2.6084 B	.67472	
	3	2.8844 A	.65689	
	4	3.0750 A	.80853	
Career decision level	1	3.1199	.65955	.795
	2	3.1427	.59442	
	3	3.2465	.72913	
	4	3.2611	.62730	

***p<.001, A>B; Duncan test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다른 문자로 표시함

Table 7.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gender

Variable	Gender	Mean	SD	t value
General satisfaction	male	3.2564	.86412	-1.579
	female	3.4627	.74298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male	2.6769	.83049	-0.037
	female	2.6816	.71778	
Career decision level	male	3.3789	.86573	1.643
	female	3.1427	.60701	

중소도시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아 지방대일수록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6>에 나타나있다. 학과만족도에 있어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의 경우 4, 3 > 2 > 1학년 순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은 4, 3 > 2,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처음 가정교육과에 들어왔을 때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eon et al., 2001; Lee et al., 2010)에서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학과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나거나 혹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Oh와 Lee(2005), Lee et al.(201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나 4학년이 2학년보다 진로결정이 더 확고하다는 선행연구(Koh, 1992; Kim & Kim, 1997; Kang & Lee, 2006)와는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가 <Table 7>에 나타나있는데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고려하고 있는 직업을 <Table 8>과 같이 전공 관련 직업과 전공 비관련 직업으로 크게 나누고, 전공 관련 직업은 다시 가정교사, 타과교사, 교육관련 직업(유치원, 보육, 상담 교사, 교육공무원, 연구원, 교수, 학원), 가정관련 직업(패션, 영양, 상담, 아동, 소비 영역의 직종)으로 분류해 보았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고려하고 있는 직업은 타과교사>전공 비관련 직업>가정관련 직업>교사관련 직업>가정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타과교사와 전공 비관련 직업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들의 전공인 가정교사는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진로고민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만족이 낮게 나타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가정교과가 중고등학교에서 주요교과목에서 밀려남으로써 임용교사 정원의 축소로 인한 졸업 후 가정교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공인 가정교과 교사로의 진로를 위해 임용교사 정원을 늘리려는 대책 외에도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가정교과가 꼭 필요한 교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Table 8. Considering job(multiple response)

	Considering job	Frequency	% in total respondents
Major concerned job	Home Economics teacher	32	11%
	Teacher	133	46%
	Education concerned job	40	14%
	Home Economics concerned job	54	19%
Major unconcerned Job		92	32%
Total		351	120%
Non respondent		61	

있도록 가정교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그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과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고려하는 직업이 타과교사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등교사로의 학생들의 갈망이 큼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정교사로서의 비전이 불확실하므로 학생들이 타과로의 전과나 복수전공으로 대체 진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학과에서는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복수전공을 함으로써 모자라는 진로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앞서 논의한 것처럼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진로상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고려하는 직업에 따라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복수응답을 한 경우 제일 먼저 고려한 직업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는 <Table 9>와 같이 학과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보다 일반적 관심 만족과 사회적 인식 만족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과에 대한 만

족이 높을수록 전공 관련 직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대학에 입학할 때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들어오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학과만족도가 떨어지고 전공과 무관한 대안적 진로를 모색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진로결정수준에서는 고려하는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공 비관련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유의하게 낮다는 Lee et al.(2010)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3.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10>에 나타나있다. 진로결정수준에 학과만족도 중 일반적 관심 만족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관심에 따른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관심

Table 9.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considering job

Variable	Considering job	Frequency	Mean	SD	F value
General satisfaction	Home Economics teacher	25	3.7943 A	.50183	8.259***
	Teacher	112	3.4949 A	.73495	
	Education concerned job	18	3.4048 A	.91964	
	Home Economics concerned job	26	3.7308 A	.76380	
	Job unconcerned in major	52	2.9725 B	.66589	
	Total	233	3.4298	.76172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Home Economics teacher	25	2.9920 A	.71059	7.749***
	Teacher	112	2.7321 A	.68632	
	Education concerned job	18	2.7000 A	.77079	
	Home Economics concerned job	26	2.8308 A	.72375	
	Job unconcerned in major	52	2.2077 B	.63981	
	Total	233	2.6515	.72879	
Career decision level	Home Economics teacher	25	3.1422	.62978	1.651
	Teacher	112	3.2470	.63871	
	Education concerned job	18	3.1049	.74362	
	Home Economics concerned job	26	3.4765	.66392	
	Job unconcerned in major	52	3.1068	.67307	
	Total	233	3.2191	.66037	

***p<.001, A>B; Duncan test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다른 문자로 표시함

Table 10.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level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	R ²
Constant	2.520		14.703		
General satisfaction	0.190	0.223	3.909	15.281***	0.046

***p<.001

만족과 사회적 인식 만족 모두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ang & Lee, 2006; Lee et al., 2010)와는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가정교육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교육과의 경우 현재 단기간에 사회적 인식에 의한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힘든 만큼 진로지도에 있어 오히려 일반적 관심에 따른 학과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학과에 대한 일반적 관심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과의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동기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학생들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가정교육과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만족을 높여 학생들이 학과에 대해 만족하고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로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처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참고가 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일반적 관심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어나 수학교육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심한 차이를 보여 사회에서 비인기학과의 취급받는데서 오는 학생들의 불만족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가정교육과라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 학과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각 학교의 상황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학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가정교육과의 경우 이처럼 학교, 학년에 따라 학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는 학과만족도의 경우 각 학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학과에서는 진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가장 고려하는 직업으로 타과교사와 전공 비관련 직업을 들은 반면 자신들의 전공인 가정교사는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진로 고민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진로결정을 위해 여러 직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은 학과, 학교, 학년, 성별, 고려직업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졸업을 앞둔 고학년의 경우 진로지도가 더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은 학과만족도 중 일반적 관심 만족에만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즉, 일반적 관심에 따른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지도에 있어 학생들의 일반적 관심에 따른 학과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가정교육과의 경우 단기간에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힘들다하더라도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은 학과의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으므로 학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진로지도를 해야 하는 가정교과 교육자들

에게 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만족도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가정교육과에 대한 사회의 좋지 않은 인식으로 가정교과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계기로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타 교과와 차별화되는 가정교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정교과의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으로 개편하여 가정교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개발, 사용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의를 높여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복수전공을 유도함으로써 모자라는 진로기회를 열어주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진로상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한정적이어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국의 가정교육과를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Ha, H. S. (1999).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S. C. (2003). *A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nalysis of Related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E. K., Chang, E. Y., Lee, K. H. (2001). Satisfaction Factors for a Clothing and Textiles Major: A Mode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9), 1614-1620.
- Kang, Y. S., Lee, E. J. (2006).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Major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in Jeon-buk A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5, 1-22.
- Kim, B. W., Kim, K. H.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Kim, C. H. (2008). Study on Students' Consciousness Regarding Their Plans after Graduation.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Journal*, 17, 91-107.
- Kim, M. J. (2009). The Study on Career Conscious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Dancing. *The Korean Society of Dance*, 58, 19-39.
- Kim, S. G., Chae, J. H. (2008). Evaluation of TQM(Total Quality Manage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by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179-200.
- Koh, H. J. (199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R., Park, S. G. (2010).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3(1), 79-105.
- Lee, M. S., Lee, Y. J., Moon, H. K., Lee, Y. Y. (2010). Career Decision Level of Clothing and Textile Major College Students in Seoul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11), 1870-1879.
- Lim, Y. S. (1993). A Study on Career Socialization in College Students with the Focus on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 107-129.
- Oh, C. S., Lee, B. H. (2005).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Making in Adolescent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3), 93-113.

<국문요약>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11년 10월에서 11월까지 서울소재 2개 대학과 지방소재 2개 대학 가정교육과 학생들과 서울소재 A대학의 국어와 수학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일반적 관심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보통이상이나 사회적 인식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국어나 수학교육과와 비교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 따라서도 학과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고려하는 직업으로 타과교사와 전공 비관련 직업을 들였고 가정교사는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관련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전공 비관련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학교, 학년, 성별, 고려직업 모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수준은 학과만족도 중 일반적 관심 만족에만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가정교과가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타 교과와 차별화되는 교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정교과의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으로 개편하여 가정교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개발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의를 높여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진로상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1월 07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03월 26일